

## 제29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0. 1. 31(월), 14:00~18:3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

3. 참 석 : 총 13명 중 8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박영무 의 장, 주동표 부의장, 조중열, 이재호, 오동석, 박철균, 임원형, 김관균(이상 8명)

- 불참 평의원 : 김용호, 박정웅, 박상호, 박윤규, 이해진 평의원(이상 5명)

4. 회의안건(자문사항)

-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 관한 사항

· 2010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제3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2011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본예산(안)

· 2010학년도 의료원 제2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2011학년도 의료원 자금예산(안)

5. 개회선언

의장 박영무 : 성원보고 해주십시오.

간사 김근태 :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3분 중에 현재 7분이 참석하셔서 과반수가 되었습니다. 오동석 평의원께서는 조금 후에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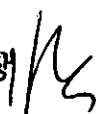
의장 박영무 : 제29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사항으로 3차 추경 예산(안) 교비회계 본교와 의료원이 있는데 기획처장께서 와계시니 본교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 2010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제3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수입  
176,250,298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 2010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제3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지출  
176,250,298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 박영무 :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임원형** : 등록금 수입 증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학부 재학생 등록금 수입 증가 부분이 연초에 본예산 때에는 정원 외 학생 수가 계산이 안 되었다가 마지막에 계산되면서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사이에 휴학생이 예상보다 많이 줄고 재학생이 늘어나면서 증가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카운트가 되지 않았다가 카운트가 되면서 등록금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더 늘어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평균적으로 추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데 어떤 때는 학생 수가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2010년도에는 2009학년도의 실적을 반영하여 본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그 숫자와 대비하여 볼 때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수치입니다. 학생들이 휴학을 많이 하지 않고 복학생은 더 많이 늘어났으며, 정원 외 학생이 2009년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예상외의 학생 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이렇게 매년 증가하면 좋은 데 예상보다 줄어들 때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실제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늘게 되면 수업을 들을 때 불편했을 것 같기도 하고... 2,700,000천원은 등록금 인상을 한다고 하면 등록금을 인상하고도 남을 숫자인데...

**기획처장 임재익** :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 학생 수는 일정한데 사이클이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수입을 크게 보면 등록금 수입이 1,500,000천원 정도 증가한 데에 반해서 안타깝게도 전입 및 기부금 수입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전입금이 1,700,000천원 가까이 줄어들었고 기부금도 1,700,000천원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재단 전입금이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재단 전입금이 감소한 것이 갑작스럽게 줄어든 것입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재단전입금은 추경을 하는 시점에 줄어들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언제 통보받으셨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1월 초 쯤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혹시 이유를 들으셨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법정부담금 전입금의 감소는 재단의 재정을 고려하여 반영된 것

< 간서명 란 >

의 함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런데 재단이 과연 재정이 어려운지 약간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 5월 20일 대우학원 284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법인의 2009 회계연도 단기수익금이 3,775,000천원이고,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 2,749,000천원이어서 고 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거기다 집어 넣어야겠다 라고 하는 상임이사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재단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법정부담금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자금 flow에 대한 처분이 아니고 손익에 의한 처분이라서 직접적인 자금 flow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하지만 이게 1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게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상되어 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의장 박영무 :** 처장이 답변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하였는데 자세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팀장이 더 잘 알고 있고 질문 내용인 법인 전입금이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서 예산팀장과 함께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만 왜 법정전입금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법인에서는 한마디로 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법인이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렇게 되면 법정전입금이 그나마 2009년 50% 수준까지 올랐었는데 이제는 20% 수준으로 급락하게 되고 1월 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학교로서는 예상되었던 수입이 1,600,000천원 가까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학교는 이를 다른 재원으로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왜곡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세우는 상황에서 얼마가 전입될 지 재단에서 알려주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거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2,600,000천원에서 1,600,000천원으로 줄어들면 거의 50%가 줄어드는 것

< 간서명 란 >

의 1/2/3/4

인데...

**기획처장 임재익** : 저희들도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재호** : 기부금 수입에 있어서 1,000,000천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대폭 줄어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기부금은 목표 지향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는 측면에서 예산을 목표 지향적으로 세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야 대학발전팀 등 기부금 활동 관련 부서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고 하여 목적을 높게 세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이룰테면 조금 커다란 금액으로 2009년에 비하여 2010년에 기부금이 끊기게 된 것이 어떤 항목입니까? 이게 작은 액수가 모여서 1,000,000천원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 큰 액수들이 있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지금 질문 내용은 2009년에 들어왔는데 2010년에 들어오지 않은 큰 액수의 기부금이 있는가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작은 액수의 기부금이 모아진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구체적으로 의과대학 발전기금의 경우는 2010년에 500,000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처장 임재익** : 의과대학 발전기금은 575,262천원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최근 몇 년 간 어느 정도 액수가 기부되었는지 알 수 있는지...

**기획처장 임재익** : 매년 500,000천원 정도 모금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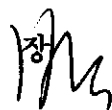
**평의원 이재호** : 1,000,000천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적은 금액들이 모여서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기획처장 임재익** : 기부금이 큰 액수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없고, 우리학교의 기부금은 동문님 등이 작게 작게 도와주시는 것이 대부분이라 기부금 수입이 경기의 변화에 민감하여 좋을 때는 많이들 도와주시고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학교 앞에 아주 사랑 간판이 붙어있는데 그게 2010년부터 시작한 것인지...

**기획처장 임재익** : 음식점 등 학교 앞 업체가 기부를 하면 그에 대한 감사 표시로 아주 사랑 명패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기부 업체 전체에서 30,000천원 정도 기부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사회다 보니 당장 효과가 있다 라기 보다는 조금 더 낫지

< 간서명 란 >

의 장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의원 조중렬 :** 민자기숙사가 취소되었다고 하는 데 이진 어떻게 된 것이지요?

**기획처장 임재익 :** 학교에서는 민자기숙사를 진행하고 싶으나 비용적 측면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00,000천원 미집행 된 것도 그것을 시작을 해서 계속 진행해야 하는데 그에 따르는 비용 만들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립금이 있으면 그 적립금으로 진행하겠으나 지난 몇 년 간 종합관 건립과 함께 기금이 소진되는 바람에 자금이 부족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렬 :** 민자기숙사를 지으면 상식적으로 건립하는 쪽에서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데 그것이 아닙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기본적인 운영은 그러하나 기숙사 설립에 따라 부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드리자면 가장 큰 문제가 전기입니다. 학교에서 10,000kw까지는 일반 전기 사용이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면 별도의 전기선을 끌어와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두 선을 끌어오는데 약 4,000,000천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광고가 개발되게 되면 광고변전소에서 전력을 끌어올 수 있게 되어 비용이 줄어들게 될 텐데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이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 건설 비용 등이 있어서 운영 자체는 건립하는 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려 하지만 그 외의 학교에서 부담해야하는 비용 발생 부분이 있어 미뤄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으나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민자기숙사는 그럼 계획은 없는 건가요?

**기획처장 임재익 :** 계획이 있으나 예산 사정 상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2009년에는 민자 기숙사를 하려고 해도 민자 사업을 맡아서 하려고 하는 기업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가 나아져서 설립하겠다는 기업이 있는 것인가요?

**기획처장 임재익 :** 기숙사를 완전히 외부 기업에 맡기게 되면 기업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학교에 어느 정도 guarantee를 받고 싶어 하는데 입실 비용이 수익 나는 만큼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으나 그 기업들이 학교가 원하는 가격에 맞추어서 설립해 줄 것인가는 다른 이야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가능한 한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이고 물론 민자 기숙사의 시스템으로 진행하지만 완전히 기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

< 간서명 란 >

의 장

라 학교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렬 :** 민자기숙사를 하면 운영권은 대략 몇 년 정도를 보장하는 것입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보통 20년을 보장합니다. 민자 기숙사 설립을 하겠다는 기업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여라도 그런 문제(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지는)가 생길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시작의 큰 문제는 학교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기 고정비용 때문입니다.

**평의원 조중렬 :** 그렇다면 언제쯤 이어서 일을 진행할지는 모르는 상태입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그렇습니다. 예산을 만들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새로 총장님이 오시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재단전입금에 대해 더 여쭙보고 싶은데요. 전입금에 경상비 전입금과 법정전입금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배분 부분은 올 때부터 꼬리표가 달려있는 거죠?

**기획처장 임재익 :** 예. 처음부터 각각의 항목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경상비 전입금의 경우는 사용내역이 정해져서 오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기타경상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계정입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기타경상비는 따로 목적이 정해져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평의원 이재호 :**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기획처장 임재익 :**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비 부족한 부분에 사용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렇다면 법정부담전입금의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서 경상비전입금에서 기타경상비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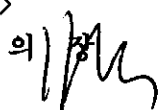
**평의원 이재호 :** 법인의 의도에 따라서 알아서 주는 것인가요?

**기획처장 임재익 :** 지금은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상식적으로 법정이라는 말이 붙는다면 가능하다면 그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경상비 전입금 중에서도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부담금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편성하는 것이 옳겠으나 법정부담금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타경상비를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2010학년도에 전입되어 온 기타경상비는 어떻게 사용 되었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예산상 기타경상비는 지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어떤 항목에 포

< 간서명 란 >

의 

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매칭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 재원의 일부항목으로 조달되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렇다면 기타경상비에 해당하는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예. 지정되어서 보내오면 그 목적대로 사용하나 그렇지 않는 경우 기타경상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지출 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도 잘 이해는 안갑니다. 법정부담전입금의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서 기타경상비를 보내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십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도 법정부담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파이가 있을 것인데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자 하여 기타경상비로 보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산 때에는 좀 더 분명해질 수 있으나 지금은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에서 학교로 전입금을 입금하며 보내는 공문에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내역을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는 기타경상비로 명시하였으며, 결산 시에는 좀 더 분명하게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렇다면 기타경상비는 현재까지는 사용 용도를 미지정한 액수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예비비 내역 중 학생지원 글로벌문화탐방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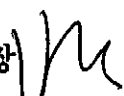
**기획처장 임재익 :** 이는 글로벌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자치기구의 위상정립과 세계화, 국제화를 선도하는 21세기 新리더십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며, 학생회 간부로서의 고민공유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20,000천원과 학생 참가비 2,600천원으로 진행되었고, 대상자는 학생자치기구 임원 및 총학생회 집행부 13명이었으며 진행시기는 8월27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사흘간 어디를 다녀온 것입니까? 학생회 간부가 간 것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학생자치기구 임원 및 총학생회 집행부가 다녀온 것입니다.

**평의원 임원형 :** 학생들이 가는 대학 문화탐방을 함께 간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진행된 것입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예산팀장 조정숙** : 별도로 진행된 것입니다.

**평의원 오동석** : 작년에도 없었고 내년 예산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데 금년에만 특별하게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기획처장 임재익** : 예비비라는 것은 총장의 의지로 1년간 학교를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평의원 오동석** : 그렇지만 이 사업이 리더십 관련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학생자치기구 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하필 금년에만 특별하게 진행된 것인가요?

**기획처장 임재익** : 모든 사업들이 매년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기는 어렵고요. 많은 것들이 제도화되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떠한 사업을 진행해본 후 괜찮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제도화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임원형** :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는 사실 학생회 LT비(리더십강화프로그램 비용)가 별도로 있었는데, 큰 portion을 차지하고 있다가 2009학년도 총학생회 때에는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총학생회끼리 다녀온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공고가 되었던 내용인가요?

**기획처장 임재익** : 학생 행사와 관련하여 진행하는 부분은 학생처에서 구체적으로 관할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공개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지난 추경 때에도 예비비에서 총학생회 장학금이 편성되었는데 그 때도 없었던 학생문화탐방이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진행된 것인가요?

**기획처장 임재익** :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도화가 되면 예비비가 아니라 본예산으로 진행이 되었을텐데 지금 아마 추측인데 2008년에 LT비(리더십강화프로그램 비용)가 있었다가 2009년부터 예산 삭감 등을 통하여 없어지게 된 부분을 2010년에 예비비로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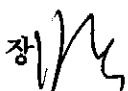
**평의원 이재호** : 2009학년도에 항목명이 무엇이든 간에 학생회 간부들이 어디 다녀올 수 있었던 예산이 있었습니까?

**평의원 임원형** : 일반 학생들이 가는 문화탐방에 인솔자 형태로 함께 가는 경우는 있었으나 총학생회가 별도로 가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아까 총학생회 LT비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평의원 임원형** : 총학생회 교육비 등의 항목으로 2008년에 있었고, 2009학년도에

< 간서명 란 >

의 장 



도 학생지원비 등으로 편성되어 국내로 MT 등을 가는 경우는 있었으나 해외로 간 사례는 없었습니다. 학생회가 해외로 간 것인지도 몰랐고 오해의 소지가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프로그램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예산에 편성하고 진행되는 행사이니 만큼 비공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오동석** : 예비비는 구체적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목적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결산 시에 이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하였는가에 대해서도 판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예비비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총장이 학교를 1년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여러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평의원 오동석** : 예비비 전체로 2011학년도에 80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총장의 재량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기획처장 임재익** : 총장 개인이 아닌 학교 조직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의장 박영무** : 기획처장이 잘 모르고 대답하는 것 같은데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주일 내에 서류를 작성하여서 보고하였으면 합니다. 예비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꼭 써야할 사유가 있었던 것이니 그게 무엇이었던지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문화탐방의 경우는 학생들이 납입한 교육부대 수입에 대한 수입대응지출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평의원 임원형** : 학생지원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단과대학 및 지원기관 학생행사 지원비 38,000천원 감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단과대학 예산은 본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예산으로 배분하여 단과대학마다 목적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본부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의원 임원형** : 학생지원비로 사용하는 예산 중 38,000천원이라면 학생행사비로 사용되는 전체 예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것이 감소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처장 임재익** : 이는 단과대학 자체발전기금 추가 적립으로 갑니다.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과대학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학생행사비를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과대학에서 학교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평의원 조중렬** : 실험실습비 주요 증감에서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실험실습비 감소가 36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실험실습비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3억이라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 실험실습비가 있는데 집행하지 않았다 라기 보다는 수입을 보시게 되면 특수대학원의 등록금이 많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실험실습비가 저절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최근에 국세청 세무조사결과 부가세 납부가 있는데 지적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공동기기센터의 고가 장비를 외부인이 와서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받아왔는데 그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수입을 잡고 처리하여왔습니다. 그 부분 만큼을 지적 받은 것으로 부가세에 대한 납부내역입니다. 이진과 관련하여 5개년치를 모두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법인 수입으로 잡고 지출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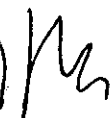
**기획처장 임재익** : 아닙니다. 법인 수입으로 잡지 않고 학교 교내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편성합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일반 대학들이 관행적으로 진행해 오는 사항인데 금번 조사에서 지적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대학원에서 연구비나 장학금 같은 것이 정원을 채우지 못할 시에는 함께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혹시 일반 대학원 내에서 정원이 초과되는 다른 학과와 미달 학과의 정원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과별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다.

**기획팀장 김근태** :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정원은 특히 일반 대학원의 경우는 인원수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1학기 2학기 마다 정원을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미리 A학과의 몇 명을 입학정원으로 정해 놓지 않고 정원수대로 다 받아보고 그리고 대학원 위원회에서 각 학과별 인원수를 정한다. 미달학과는 미달대로 초과학과

< 간서명 란 >

의 장 

는 초과되는 대로 진행을 합니다.

**평의원 오동석** : 유연성은 있습니까?

**기획팀장 김근태** : 1,2학기에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학부 정원을 계속 조정을 합니다.

**평의원 주동표** : 교육외 수입을 보면 예금이자 수입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학교예치 예금에 대한 이자 수입입니까? 2차 추경과 3차 추경이 불과 3~4개월인데...

**기획처장 임재익** : 2차 추경에서는 예금이자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차 추경은 종합관 비용 때문에 한 건만 추경을 진행하게 되어 예금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했으며, 1차 추경 시에도 예산 집행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어 예금이자 예산을 조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 수입 감소로 보아야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실험실습비 감소 360,000천원이 수입 감소에 따라서 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정통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전체 등록금 수입 감소액이 565,000천원입니다. 등록금 수입 전체가 565,000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실험실습비가 360,000천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비율을 비교해보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등록금수입과 실험실습비지출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운영부서는 지출 항목 편성 시 수입 증가분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 예산팀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예산 편성에서 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있어서는 다른 지출 항목이 줄어들고 적립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 기억에는 4~5년 전부터 연구학생경비에서 지출이 예상보다 적었을 때 차액에 해당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연구학생경비로 그 다음 해에도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경상비 전입금에 있어서 개발도상국 우수유학생지원장학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요?

**기획처장 임재익** : 제목 그대로 개발도상국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여 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주로 베트남 학생입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처장 임재익** :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알겠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특수대학원 최고위과정의 수입이 565,000천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일반대학원 등 다른 등록금 수입 같은 것은 재학생 증감 등에 따른 자연적 경향이 있지만, 특수대학원 최고위 과정은 자연적이기보다는 적극성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가장 큰 원인이 경영대학원 등의 최고위과정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1년에 40~50명이던 최고위과정이 지난 학기 몇 명만 들어옴에 따라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외부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심각한 상황인데요.

**평의원 이재호** : 이유가 분석이 되었나요.

**기획처장 임재익** : 기획처에서 예산 절감 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고위과정을 없앤다고 하다가 다시 존속시킨다고 하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뒤늦게 학생을 모집하다보니까 인원이 대폭 감소한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의사 결정에 대하여는 예산팀과 논의하지 않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그러한 특수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획팀이나 예산팀에서 운영 여부까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예산편성 시에는 최고위 과정이 운영되는 것으로 했으나 학기 중에 모집이 되지 않아 과정 폐지에 대해 짧은 기간에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없앤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평의원 박철균** : 학교가 수입 감소에 민감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 프로그램에서 감소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책임 운영부서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본부가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입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가 충분히 관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자율경영이라는 이유로 학교가 개입할 수 없다면 학교가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특수대학원의 최고위 과정은 일반 사기업이 아니고 학교의 하나의 과정이고, 수입을 자율적

< 간서명 란 >

의 장 

으로 관리한다고 하여도 이는 학교 전체 수입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수입 대폭 감소의 문제가 차후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이는 기획처에서 강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특수대학원에 대해서 자율권을 주고 적립을 해주고 하는 것이 기획처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전체 조직의 총체적인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입 총장에게 보고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세수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중의 하나로써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과 관련된 업무 총괄을 하지만 기획처장으로써의 권한을 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 본부와 총장님께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재단 전입금에 대해서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고 누적액이 늘어나 100억이 되었는데 학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단 측에 시정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학교 입장에서는 총장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서류로 하고 있습니까? 구두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주로 구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기획처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 봐야죠. 새로 총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나 재단에 본부 각 처별로 하나 하나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주요 사항은 총장님을 통해서 재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기획처장이 할 책무를 다해야지요

**기획처장 임재익** : 총장님과 상의하여서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중앙도서관 온수공사가 2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총학생회에 보고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하였는데요. 본예산을 보니 온수공급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온수 공급에 대한 향후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예산팀장 조정숙** : 예산협의 과정 중 삭감된 부분인데 울곡관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2011학년도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처장 임재익** : 학교에서는 화장실과 온수 공사를 계속적으로 건물마다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시급한 건물부터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등록금협의 과정을 거칠 때마다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 삭감되어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교원 미충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는데, 좋은 교원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다보니 미충원이 된다 라는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그런 이유인지 다른 이유인지 궁금하고요. 또한 이와 함께 중도퇴직 부분은 좋은 교수님들이 다른 학교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 학생이 예민한 부분인데요. 중도퇴직에 대해서 어떤 사유인지 여쭙봐도 될까요?

**기획처장 임재익** : 미충원이 2명이고, 중도퇴직자 4명입니다. 김영래 교수는 동덕여대 총장으로 가셨고,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오세기 교수, 인문학부 김현 조교수, 정컴학부 이정석 조교수가 중도 퇴직하셨습니다.

**의장 박영무** : 재단전입금을 못 내게 되면 고등교육법에 보면 2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단이 그렇게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을 재단이 왜 내야 되는 겁니까?(참조 법률 : ①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벌칙)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획처장 임재익** : 사립학교법에서는 그런 처벌 조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사립학교법에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법정전입금의 용도로써는 퇴직금 및 4대 보험 등 조직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재단이 그것을 부담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임용자로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렇다면 법정 부담금을 못 내면 임용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네요.

**기획처장 임재익** : 법적인 부분으로 설명하신다면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한다면 학교가 내는 것으로 사학연금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

< 간서명 란 >

의 장 

한 판단 문제는 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그렇다면 사용자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것인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그 부분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정전입금을 못 내었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재단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10년을 보면 재단의 경제 상황 상 현재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으나 20년을 보면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기획처장께서 사립학교법과 사학연금법이나 건강보험공단의 법을 파악을 해서 학교 측에서 재단으로 정식으로 법정부담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구두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법령을 제시하고 문서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법인과 그런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결국 총장이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처장은 총장을 지원하고 제도를 만들고 의견을 전하는 역할이고 학교 총체적인 관계를 재단과 형성하는 것은 총장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대하여서는 더 공부하고 그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은 총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

**평의원 이재호** : 학교는 학교대로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평의원회는 평의원회대로 자문의견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이것으로 학교 본교 3차 추경 자문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2011 본교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다.)

- 2011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본예산(안) 수입 157,956,887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 2011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본예산(안) 지출 157,956,887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 박영무** :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산 설명은 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니 본 예산(안)은 질문만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김관균** : 예산 보고할 때도 그렇지만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고할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한 장 정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는 짧게 하시고 질문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성의껏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영무** :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것이니까 ...

**평의원 조중렬** : 11페이지에 보면 일반관리비 여비교통비가 500,000천원 정도인데요. 외국출장을 간다고 해도 1인 5,000천원 정도 잡아도 500,000천원이라고 하면 100명이 간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여비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요?

**기획처장 임재익** : 해외출장만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으나 국내 회의 참석 등도 비용적인 측면은 적으나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부 뿐 아니라 단과대학 등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액수가 많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국내 출장은 1회 몇 만원 정도이지만 교수님들 수만 하여도 수백 명이고 그에 대한 것이 다 포함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여비가 2010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국내여비, 해외여비 모두 봤을 때 2009학년도에 비해 2010학년도에 30% 정도 상승했는데요.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사유가 있습니다. 우선 계정의 변경이 있는데 학생들 해외탐방 인솔자의 비용을 과거에는 여비로 편성하지 않고 실험실습비나 학생경비로 잡았던 것을 목적에 많지 않다고 판단하여 계정을 변경하다 보니 여비의 숫자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평의원 주동표** : 2011년도 전입금 수입액이 1,500,000천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기획처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단과 함께 합의가 된 것입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단독으로 기획처에서 할 수는 없고 법인에 문의 한 후 예산을 편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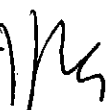
**평의원 주동표** : 그럼 금년에는 1,500,000천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법정전입금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정확히 말하면 법정전입금은 법정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에 대한 4대 보험에 대한 것입니다. 연금, 의료비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간서명 란 >

의 장 



예산팀장이 말씀해주시죠.

**예산팀장 조정숙** :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이렇게 4대 보험입니다.

**평의원 김관균** : 4대 보험은 법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몇 %죠?

**예산팀장 조정숙** : 보통 개인별로 다른데요. 개인별 보수의 7~8% 정도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총액으로는 아마 3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앞에 법정이란 말이 붙는다는 것은 이게 법에서 정한 금액이라는 것인데 법에서 정한 금액을...

**기획처장 임재익** : 그 돈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정전입금은 법정부담금이 맞는 것이고 그것은 기관에서 내야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법인에서 넘긴다고 하여서 법정전입금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그런데 2010학년도를 보면 법정부담금이 줄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인데 그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법정이라는 용어가 무색해 지는 거 같은데요. 용어가...


**예산팀장 조정숙** : 용어에 대하여 부가 설명을 드린다면 피고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학교가 50%를 부담해야 하는 근거를 법에서 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평의원 김관균** : 그런데 법정부담금은 법이 정한 것인데 이것을 법인이 마음대로 줄 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법정부담금은 기관에서 내지 않으면 그 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이라 반드시 내야 한다고 해서 법정부담금이지만 담당부처에서 봤을 때에는 법인에서 부담하거나 학교에서 부담하거나 크게 상관하지 않고 그저 기관에서 내면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낼 수도 있고 학교가 낼 수도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렇지 않아요. 재단이 내야 됩니다. 안내면 벌칙조항까지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에 보면은 제일 끝 부분에 가서 사학들이 잘 내지 않으니까 그것을 봐주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확실한 조항은 기억나지 않으나 끝 부분에 보면 재단이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가 낼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재단에서 법조항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조 법률 : ①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보험료의 부담)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

< 간서명 란 >

의 장 

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평의원 이재호 :** 재단이 영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낼 수 없는 상태인가에 대하여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재단 법인 이사회 회의록 등을 보았을 때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의원 김관균 :**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남는 이익에 대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왔지 않습니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을 했다면 그 적립한 금액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정부담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많은 금액을 적립했으면 그 금액을 이제 법정부담금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히 법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원이 있으니 법인이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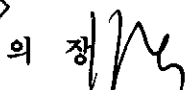
**의장 박영무 :** 재단이 스스로 모순에 빠져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고용자로서의 책임입니다.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책무는 달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법정부담금이 4대 보험이라고 하면은 고용의무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학생보건체력비 및 취업지도비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보건체력비나 취업지도비가 20%씩 감소되어 있는데 취업지도비를 왜 줄이는 것입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취업지도비가 많은 부분이 국고입니다. 정부에서 취업 관련하여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주는 데 올해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노동부지원금이 2010년도에 160,000천원이었는데 2011학년도에는 노동부 지원금이 50,000천원으로 110,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것이 있고, 또 노동부 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여서 237,000천원이 117,000천원으로 줄어들어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지원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많아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없앤 것이 아니라 다른

< 간서명 란 >

의 장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실질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1인당 취업지도비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평의원 박철균 :**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수입이 1,154,000천원으로 3년차 학생이 입학하면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따라 총수입이 늘어나면서 함께 장학 등 지출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이 되면서 학교가 총 등록금 수입 대비 총지출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 지 이에 대해서도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하기 어렵고 크게 말씀드리자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현재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게 됩니다. 제일 큰 부분이 교수 숫자인데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전문 인가를 하면서 교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운영을 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인가의 내용을 관계자들이 법령으로 만들어 놓아서 교수 숫자가 고정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학교가 유동성이 있게 교수 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현재 학생대비 교수 인원수가 상당히 많으며 현재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은 실정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2011년이 되어도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것입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법전문이 경기도에서 우리학교 하나 밖에 없고 상당히 학교 위상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10년 후쯤 되면 졸업생들이 배출되면서 경기도나 중앙부처의 요직에 자리 잡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가가 든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평의원 박철균 :** 이런 내용을 거론하는 이유는 대학평의원회의 주요내용이 대학발전에 관한 사항인데 사실 하나의 단위 대학원이 운영이 되면서 총괄적으로 학교에 미치는 영향, 예산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더라도 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발전 방향에 대한 의지가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구성원들이 법학전문대학원과 약학대학 등 신설 조직이 생길 때마다 다른 부서에게 예산상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그것이 학교의 전체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 것인지 공감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이 한 term을 돌아갔다고 하면 지금쯤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수입이 당초 설립 당시 예산은 어느 정도였는데 실제 운영해보니 이 정도이고, 지출도 이 정도 예상되

< 간서명 란 >

의 장 

었는데 실제 지출되는 것을 보면 이 정도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 과부족 내지 변경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예산상의 부족 재원 조달은 이렇게 할 것이고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다 라는 식의 단기 보고서 정도는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이 예산에 묻혀 돌아가기 때문에 학교 전체 예산에 압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학교에 필요한 것인가 도움을 주는 것인가에 대하여 조직구성원들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약학대학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하나의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것이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학교 전 구성원이 동의하는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설득과 그런 부분에 대하여 공감을 얻어내는 과정이 충분히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번에 3년차 한 주기를 돌리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총수입 대비 총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향후 우리가 법학전문대학원 같은 조직을 만들 때 활용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를 지원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우리 실정이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살펴지 못하고 크게 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유치한 것이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학교 기구라는 것이 예산이 부담된다고 하여 없애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기구 신설 시 분석을 통한 판단으로 재정의 부담 등이 없이 유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전원은 평의원회의 의견을 받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박철균 평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일반 사기업에서 사업을 착수할 때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판단하지만 대학의 경우 사업 착수 시 비용편익분석만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비용편익분석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더 든다고 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며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마음의 준비와 실질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앞으로 기획처에서 진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시설관리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홍익대학교에서 청소 용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학교도 용역을

< 간서명 란 >

의 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1학년도에 3,900,000천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학교가 직접 고용을 하는 것보다 용역을 줘서 얻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일반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20년 전에는 직접 고용 했으나 그러다보니 항상 똑같은 인원이 필요하면 좋으나 인원의 변동이 심하여 일이 없을 때에도 계속 고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역으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이며 업무의 전문화와 비용 부담이 커짐에 따라 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용역비의 증가는 종합관 신설에 따라 용역이 더 필요하게 되어 증액된 부분이며 우리학교에서의 용역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용역계약에 임금이 얼마인지도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예.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그런 부분을 정하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우리학교가 얻는 이득은 고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정도 인가요?

**기획처장 임재익** :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직접 고용 시 관리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그건 우리학교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몇몇 학교에서는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기획처장 임재익** : 어떤 사유로 그렇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조중렬** : 보통 단과대학들이 방학이 되면 교수세미나를 가는데 이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비교통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그것은 여비교통비가 아니라 행사비에 포함됩니다.

**평의원 조중렬** : 그런데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줄이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획처장 임재익** :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긴한데 우리학교가 7년 전부터 단과대학 예산을 자율 운영하도록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단과대학에 배분하면 그 안에서

< 간서명 란 >

의 장 114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과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학생경비 관련하여 전에 29대 총학 복지장학으로 9억이 편성되었었는데 그에 해당하는 장학금이 2011년에 살아있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전체 장학에서 복지장학의 총액을 등록금의 3%로 정부에서 정해 주는데 그것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2011학년도에는 가능하면 그 비율을 가능하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는 복지장학이 증액되어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복지장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그 장학금이 원래 복지 장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나요.

**평의원 이재호 :** 이 전의 복지장학이 그 외에도 또 있지 않았었나요. 특별복지장학 말고...

**예산팀장 조정숙 :** 네. 원래 복지장학이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렇다면 그 복지장학과 특별복지장학 금액이 지금 살아있는 것인가요?

**예산팀장 조정숙 :** 예. 더 늘어났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2010학년도에 예비비로 지출되었던 문화탐방은 학생처 예산에 정규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올해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예비비에서 15,000천원이 더 지출되었던 학술행사지원비는 2011학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그렇지 않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번에도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경비를 줄였다가 만약 꼭 필요하다 싶으면 한 번씩 예비비로 집행하게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매년 의과대학 발전기금이 5,000,000천원 정도 편성되었다고 하였는데 2011년 예산에는 의과대학 발전기금 5,000,000천원 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반영 되어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2010년에도 의과대학발전기금 5,00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2009학년도에는 확인되나 2010학년도 예산에서는 확인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름이 바뀐 것입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처장 임재익** : 예산에는 학부 교외장학 기부금 계정으로 전체로 포함되어 배정되어 있고 결산 시점이 되면 명확하게 꼭지가 달려오게 됩니다.

**평의원 김관균** : 2011년도 본예산 중 전년에 비해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기초는 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등록금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 등의 이유로 동결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보수는 승급분 포함하여 2.4%를 인상하려 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예산 및 운영예산은 대폭 절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다음 예산 보고 시에는 전체적 흐름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 장으로 주시고 보고하는 내용은 간략하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혹시 총 수입금이 건물에 들어가는 수입 지출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금 인출이 13,600,000천원입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수입이 크게 보면 2010년 예산이 176,200,000천원이고 2011년도 예산은 157,900,000천원입니다. 18,200,000천원이 줄게 되는데, 투자와 기타자산수입에서 13,400,000천원이 종합관 건설 기금이었는데 여기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5,000,000천원이 빠졌습니다. 수입은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약간 늘었고 나머지 수입에서는 기금 인출과 차입을 안 한만큼 감소가 된 것입니다.

**평의원 박철균** : 수입의 구조가 과거 5년 동안 등록금 수입 및 기타 고정적인 수입 외에는 수입의 구조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가 수입의 구조를 좀 더 다변화시키기 위한 정책 연구를 하거나 또는 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등록금을 동결하였으니 지출을 줄이겠다 라는 방침으로 가게 되면 임금과 공과금은 인상되므로 실제적인 사업비는 마이너스 구조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구조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을 공격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그래서 아까 특수대학원의 최고위 과정의 수입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수입이 줄어든 부분이 금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만약 전년에 줄어든 수입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그것은 굉장히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어도 재작년의 수입이 좋았던 시점만큼의 예산은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니다. 기존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몇 년간의 추세를 반영하여서 수입이 전년에 줄어든 것이라면 다시 수입을 끌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수입이 반영되어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전년도 감소된 기준으로 반영한 것은 아닌가요?

**기획처장 임재익 :** 지금 최고위 과정만을 한정적으로 말씀하시나 전체적으로 특수대학원의 수입은 2011년도에 늘어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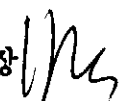
**평의원 박철균 :** 거기에는 특수대학원의 등록금 인상분이 포함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특수대학원은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등록금 인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특수대학원이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원을 증가하여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큰 과제를 말씀해주셨는데 2011학년도 예산이 어렵다는 건 학교전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입 증대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새 총장님이 오시면 수입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 활발한 활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이 정해진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므로 정원 제한이 없는 그 외의 프로그램 평생교육이나 외국인 학생 증대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있고 올해 해야 할 일 중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과거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2배 정도, 등록금이 7%씩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등록금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거 10년 전 아주대학교보다는 예산이 좀 더 여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예산의 여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등록금을 동결시키려고 학교에 압박을 주는 것과 동시에 학교에 대한 지원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학교가 예산 정책을 세울 때 대책이 명확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 등록금 인상이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등록금 인상으로는 학교의 예산을 충당할 수 없을 것 같아 학교에서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사업 중에서 정원의 부담을 받지 않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키울 수 있는 사업을 넓혀나가 볼 생각입니다. 정원의 부담을 받지 않는 외국인 학생 유치 또는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학교가 할

< 간서명 란 >

의 장 



수 있는 가장 큰 수익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내 구조적 문제이긴 하지만 적립금 제도나 책임운영부서 제도가 만들어질 때 단과대학에 자율성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2000년대 초반이 지금보다 훨씬 자금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유가 있어 자율경영 제도를 단과대학에 만들어주면서 예산을 쓰면서 낭비하지는 말자라는 취지로 적립제도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 적립금을 보면 특수대학원이나 단과대학은 적립금이 상당히 쌓여있는 반면 본부에는 적립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기획처장이 마음대로 조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다 보니 새로운 총장이 리더십을 가지고 풀어나 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번 예산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으로 보이는 데 기부금 전입금, 국고보조금, 산학협력단 전입금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입을 너무 축소하여 편성한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2010년 예산은 3차 추경 금액인데 2010년 본예산과 비교해 본다면 훨씬 더 낮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을 전체적으로 낮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획처장 임재익 :** 기부금 부분을 보면 하나가 줄었는데 목적 및 지정기부금이 전년도 u캠퍼스 구축기부가 45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교내에 들어와 있는 제일은행이 기부금을 10억 약정하여 2년 동안 기부하기로 하였으나 그 사업이 끝나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산학협력단 전입금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항목 변경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대학원 지식정보보안학과는 예전에는 산학협력단에서 국고수입을 잡고 학교로 진출시켜 장학금 지출하였는데, 이제는 산학협력단에서 직접적으로 장학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회계를 변경하여서 학교로 넘어오는 전입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1,600,000천원 정도 됩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제도의 변경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추경에서 줄어든 재단전입금 1,600,000천원이 의료원으로 더 간 1,700,000천원과 공교롭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료원에 1,700,000천원이 더 가고 본교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 박영무 :**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추가로 2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내

< 간서명 란 >

의 장 

모든 공사는 정부조달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 관계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기준 펀드 확정 손실(2월 말) 현황을 제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금요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회의록 정리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중요한 내용은 기획팀 진성호, 김근태 간사께서 미리 정리해서 최종 회의록이 상세하게 나오기 이전에 간략하게 정리하여 회의록을 일찍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김근태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평의위원회는 모든 관련 규정에 의하여 움직여 저왔고 평의위원회 회의록이 나오면 가능하면 바로 작성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바로 발리 돌려드리는데 지체하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평의원이 13분 제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체되는 부분이 있고 confirm해서 다시 feedback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축한다면 상당히 일찍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대학교평의위원회 규칙에 따라 회의록은 3개월간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하는 것은 회의록이라는 매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이라는 회의록 매체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서 올리는 것은 또 하나의 회의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으면 합니다.

**의장 박영무 :** 총장실로 회의결과 보고하는 것이 있죠? 그 내용이 부실합니다.

**간사 김근태 :** 그것은 회의록이 다 끝나고서 feedback이 다 되고 나서 그리고 정리가 됩니다. 회의록을 feedback 받는 과정에 미리 요약본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총장실로 보내는 내용의 뉴앙스가 다릅니다. 문제입니다.

**간사 김근태 :** 가능한 회의록이 빨리 공개될 수 있도록 feedback해 빨리 해주시면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께 보고하는 것은 확정이 되면 빨리 공람해서 정확성부터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총장님께 보고하는 것은 공람하지 않고 올라갔죠?


**간사 김근태 :** 의장님께만 드렸습니다.

**평의원 조중철 :** feedback을 꼭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간사 김근태 :** feedback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회의록처럼 총장님께 보고하는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녹취 정리 시간이 줄어야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간사 김근태** : 단축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시간 문제가 있으면 평의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록이 아니라도 간단하게 요약하여 공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학교 본부와 평의원회의 이러한 절차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영무** : 지금부터 의료원 2010학년도 추경(안)과 2011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문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큰 변화 있는 것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안녕하십니까?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입니다. 우선 의료원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0학년도 병원회계 2차 추경예산(안) 수입 및 지출  
384,330,000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2010학년도 교비회계 3차 추경예산(안) 수입 및 지출  
58,840,000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의장 박영무** : 수고하셨습니다. 평의원님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조중열**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결산예산 때 재료비 구매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한 두 회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많은 것을 조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분산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회사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상당 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네 그렇죠.

**평의원 조중열** : 그 상황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10쪽에 보시면 의료외 지출에 다문화가족 증가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제21차 평의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총액이 3억에서 4천만 원 증가한 거죠? 다

< 간서명 란 >

의 장 1/14

문화가족 일환 사업은 대우재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4천만 원은 의료원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아닙니다. 대우재단에서 매년 3억씩 지원을 하구요

**평의원 이재호** : 대우재단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학교법인 대우학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아닙니다. 전혀 별개의 기관입니다. 대우재단에서 연간 3억씩 지원을 하고, 베트남 의료진 연수나 국내 다문화가정 의료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해에는 3억을 거의 집행할 못했습니다. 지출하지 못하고 적립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여기 지금 의료의 지출 중 4천만원이 그 범위 내 지출이라는 것입니까? 이월 된 것이라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그렇습니다. 첫해에 3억은 거의 못쓰고 남아있습니다. 첫해에는 하반기에 금액이 지원된데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연수생 선발 절차를 검토하는 정도만 진행되었으므로 거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럼 연결해서 2011년에도 증액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그것이 남아있는 돈에서 쓰는 것입니다. 매년 3억씩 들어오고요, 현재 적립되어 있는 돈 범위 내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2008년도에는 지출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국내의료봉사 등으로 일부 지출하였고 약 1억 이내 일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정확한 액수는 기억 안 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정확한 액수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제가 재료비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2010년 1월인가 2월 정도에 아주대 병원뿐만 아니라 몇 군데 병원이 몇 억 정도의 벌금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해소 되었다고는 들었는데, 공정위에서 벌금을 맞은 이유가 특성회사에서 재료를 구입하고, 그 회사에서 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서울시내 병원과 아주대병원이 동시에 벌금을 맞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회사에서 구매를 전부 할 테니깐 발전기금을 내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현재 그 시스템에서 큰 변화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조중열 :**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자세한 건 집행 쪽에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알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예비비가 나오는데요, 본교예산과 의료원 예산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의료원 예산의 예비비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본교 예산은 10억 안팎인 반면, 의료원 예산은 50억 이상 잡혀있어서 추경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예비비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임금인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회계처리상 적정 한가 궁금한 점이 있고요. 예비비라고 하면 예산편성 할 때는 예측하지 못했으나 꼭 써야 할 부분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자료를 더 받은 거에 의하면 심지어 법정부담금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 적정한지 여쭙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웰빙센터 등 긴급사업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웰빙센터는 건축이 지연되면서 137억에서 74억으로 줄어든 것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비비가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웰빙센터 표현은 잘못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법정부담금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처음에 예산에 편성된 부담금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비비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경우에는 노사 협상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임금인상이 거의 9월에 결정이 되는데, 건축재정이 필요시 통상적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예비비에 약 2% 정도 편성하고, 9월에 협상이 되어 지출을 할 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한 가지 더 여쭙보면 제가 예비비 사용 내역에서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54.7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액수랑 맞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교비 쪽 26페이지 보시면, 8.6억 감소부분이랑 병원 쪽에 46.1억 감소부분을 합치면 54.7억이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네 그렇군요.

**평의원 조중열 :** 제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의대하고 의료원에서 교수들이 학교에 산으로 출장 가는 여비는 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네 관리비에 들어갑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조중열 : 관리운영비에는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관리운영비에 들어가는 항목이나 세부항목은 따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여비가 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의료원은 따로 만나오고 의과대학 여비로만 나오니까?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병원이 1억 8천, 교비가 2천 9백만 원입니다.

평의원 조중열 : 그렇게 액수가 많지는 않네요. 합쳐서 2억 정도네요. 그게 해외여비 포함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네. 그렇습니다. 해외출장, 국내출장 합쳐진 비용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올해도 건축기금 65억을 전출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기금의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노력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저희가 65억 정도를 건축기금으로 전출을 하고 있고요. 재단 입장에서는 학교로 전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료원 입장에서는 법인세의 감면 등으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22%인데요. 학교의 건물을 신축하는데,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재단을 통해서 학교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 이자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의료원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은 생각보다 참 작습니다. 2009년에 6억, 2010년에 5억 2천. 본교와 비교하면 1/4 수준인데, 물론 본교와 상황은 다릅니다. 본교는 상당한 금액을 일정기간 보유를 하는 반면, 의료원은 그때그때 지출되는 것이 당연히 많겠죠.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액수에 불과한데, 건축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합친다면 일추 계산해도 지금 의료원의 총 이자수입과 버금가는 정도의 액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번 지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하고 있다면 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 양성화하고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고 있다고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까, 팩트가 남지 않는 또 하나의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단이 돈이 없어 의료원에서 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를 양성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원도 어느 정도 재단에 기여하고 있고, 재단에 기여된 돈이 법정부담금이든 어떤 형태로든 본교로 지원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의료원이 결국은 본교에 기여하는 면도 드러날 수 있겠죠. 드러나지 않는 이런 구조 하에서는 실제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색이 나

< 간서명 란 >

의 장



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어떤 양성화를 말씀하는 것인지. 전출을 하는 것이 음성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아니요, 예를 들면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을 한 통장으로 관리한다면 그 통장에 기금을 넣어두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자부분도 당연히 기금에 증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오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100억원을 넣어놨다가 1년이 지나서 이자가 6억이 발생했다면, 106억이 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100억을 찾아오고 6억은 그곳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것을 106억을 가져와서 1년에 일정 액수씩 말 그대로 지원을 하면 실제로 돈의 흐름도 명확히 드러나고 돈 관리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의료원에서 재단으로 얼마가 전출되는지 숫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 전 의료원 입장에서 재단에도 기여를 하고, 전에 말씀드린 논리로 본교에도 기여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요소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나타나는 현상은 임대료 수입이 재단으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5억씩 몇 번 누락된 적이 있었죠? 누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재단에서 홀드하고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고. 법인에서 17억을 전출을 했죠. 그런데 똑같은 회계연도에 본교에서는 16억이 빠졌습니다. 재단에서 본교로 전출하려고 예산에 잡아놓은 금액 중에서 16억이 빠져서 나머지 액수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이나면, 의료원에서 우리 돈 달라고 재단에 얘기했더니, 재단에서 17억을 주고 본교에는 16억을 안 준 게 되죠. 본교는 약대 때문에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쪽에는 돈을 안주고, 의료원 쪽에는 돈을 더 준 상황인거죠. 물론 주어야 할 돈을 준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가. 의료원은 나름대로 이런 방식으로 재단에 기여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전출을 학교로 할 수는 없고, 재단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단과대학에서 기금이 발생할 때, 그 기금은 본교에서 관리를 하죠. 그랬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기금에 귀속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재단에 전출을 하더라도, 그 전출을 기금으로 관리를 하면, 그 통장 내에 발생하는 이자는 기금으로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물론 건축기금을

< 간서명 란 >

의 장 )/ks

쓰겠다는 것이지만, 기금조성 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잠정적으로 건축기금이지만 의료원 생긴 수익 중에 일부를 적립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료원 자체 내에서 적립을 하게 되면 법인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고유목적사업으로 적립을 할 경우에 5년 이내에 쓰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웰빙센터 건축기금을 우리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적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자수입이 발생하겠죠.

**평의원 김관균 :** 의료원 자체에서 적립이 가능한가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받는 형식을 취하신건데, 이전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입니다. 이 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의료원인데, 이 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의료원으로 넘어올 때 함께 넘어와야 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네.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법인의 재정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이자가 남는 식으로 드러나지 않게 처리되기 보다는 이자까지 전입을 하고 일부액수를 의료원에서 법인으로 전출하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원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니까. 그렇게 되면 의료원에서 재단에 기여하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속된 말로 돈은 돈대로 쓰고 생색은 안 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평의원 김관균 :** 그것도 있지 않나요? 병원에 있는 시설을 임대로 주고, 모든 수입은 재단에 귀속되면서 관리는 의료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그 임대수입도 그대로 학교로 들어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것 역시 이자수입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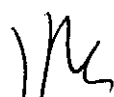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제가 의미는 알겠고요. 그런 이자 부분을 재단에 전출금으로 기여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네, 재단의 재정 상황 상 필요하다면 그렇게 기여하고 재단에서도 본교에 기여하고 그렇게 해야 의료원에서 기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다른 질문 없으시면 추경은 마치고 본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2011학년도 의료원 본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 2011학년도 병원회계 본예산(안) 수입 및 지출  
417,980,000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2011학년도 교비회계 본예산(안) 수입 및 지출  
57,520,000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의장 박영무** : 질문 해주세요.

**평의원 이재호** : 의약품 실거래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네. 예를 들면 100원짜리 약품을 저희가 40원에 구매를 하면, 차액이 60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차액의 70%인 42원을 저희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의장 박영무** : 누가 돌려줍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나라에서 돌려줍니다. 책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100원짜리 약품을 100원에 사서 100원에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쟁을 하면 제약회사에서 밀지고 팔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품목에만 해당이 되겠죠. 저희가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품목을 그룹핑을 했습니다. 약 14%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약값이 7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빼야 되는 약을 제외하고 약70~80억 정도 추정을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것 관련해서 9페이지에 용역비가 증가되는데, 이 용역비가 실거래가를 시행하기 위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이 병원에 들어와서 저장하고, 배달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용역비를 말합니다. 그 전에는 창고 임대료를 받아서 저장을 하면서 일을 해줬는데, 그것이 안 되면 외주를 주던지 병원 경비로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라는 의미에서의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2011년 예산에서 임대료 수입이 16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거래가 제도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공간을 주고 그곳에서 그분들이 자기네 약을 쌓아두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약을 줬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우리 재고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재호 :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실거래가가 적용되는 약이 모든 약이 아니라 14% 정도라고 생각하면...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아닙니다. 14%의 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익을 보는 것이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약 전체로 따지면 해당하는 약은 이제 그렇게 관리할 수 없고, 해당 안 되는 약은 전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해당 안 되는 약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작하는 병원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예전과 비슷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쪽으로 저희도 알아보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약품까지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료비도 해당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약품에만 해당됩니다. 재료는 아닙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러면 이전에 몇 번 나왔으니까 실명을 얘기하겠습니다. 수도상사가 약 300억쯤 매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약품에 해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병원 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예산 쪽에서는 정확한 액수는 자료를 받아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내년도 예산에 본교로 의료원 발전기금으로 기부되어서 넘어오는 기부금 수입이 빠졌죠? 교내 전입금으로 5억이 편성되었었는데, 0.5억으로 줄어있습니다. 그 돈 5억과 임대료 16억 정도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수도상사는 이제 저희와 손을 떼는 것입니까? 약품 외에 부분은 살아 있을 텐데 예산에 전혀 안 잡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예전에도 저희 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교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교에서 발전기금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것이 교비 쪽에서 교내전입금으로 5억 잡혔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형태로 들어오던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기여하던 액수가 전액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정확한 건지...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그동안에도 학교로 갔다가 의과대학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따로 잡지는 않고, 의과대학으로 전입되는 것은 잡혀있는데, 본교 쪽으로 얼마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는

< 간서명 란 >

의 장 

아니라서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6페이지에 보면 리스가 줄어들는데요. 이번에 웰빙센터 관련한 리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러면 실험동물센터 관련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아닙니다. 실험동물센터 관련한 기자재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결국 자체자금으로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가 줄어든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실험동물센터 기자재 등 다른 부분에서 나가는 것이 있어서 매년 병원에 신규투자 하는 기구 구입을 줄인 것입니다. 실험동물센터 기자재는 25페이지 보시면 자체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의료원에서 하는 베트남 다문화 가족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지원받는 3억으로 언어가 되고 경력이 되는 의사를 1년에 8명 면접을 봐서 선발을 합니다. 베트남 보건성과 대형병원에서 추천을 해 주면 저희가 면접을 해서 1년간 트레이닝 해서 보내줍니다. 간호사는 6개월 정도 되고요. 여기 와서 그 분들이 전공하고 있는 교실에 소속을 시켜서 임상도 배우고, 어학원에서 언어도 배울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숙소도 제공하고, 생활비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봉사를 나가는 데 그 의료진들과 함께 참여하면 말이 통하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1년 연수를 마치면 해당분야에서 상당한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 다문화가정이나 베트남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치료하는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무료봉사 비용도 쓰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대우재단은 서울역에 있는 그것인가요? 김우중 전 대우 회장님이 베트남 쪽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움 좀 받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글썽요. 그동안은 해외진출을 본격화하기에 여력이 부족하였지만 국내 환자만으로는 병원을 운영하기에 점점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향후 외국 환자 유치라든가 동남아 등으로 진출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연관을 맺게 된 베트남 정부나 의료기관 연수 의료진

< 간서명 란 >

의 장



등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 박영무** : 앞으로 크게 발전시키려는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아뇨. 계획은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도 해외진출도 해야 하고요. 해외진출을 한다면 베트남 쪽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계획을 세우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의원님들 또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붙임** : 2010 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및 2011 학년도 본예산 자문 의견서 1부.

< 간서명 란 >

의 장 

## 2010 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및 2011 학년도 본예산 자문 의견서

1. 법인이 2010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약속했던 경상비 전입금 및 법정 부담금 중 16억여원이 학교 회계로 전입되지 않았음. 특히 16억여원 전입금 감소 통보가 2011년 1월 중에 이루어짐으로 인해 학교 회계에 급작스럽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였음. 차제에 법인 전입금의 약정 및 변동과 관련하여 문서에 의한 적절한 통고 절차가 정리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법인 전입금 액수의 대폭적인 감소가 회계년도 말에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인이 유념할 필요가 있음. 한 편 삭감액 16억여원은 법인이 그간 의료원에서 전출한 임대 수입 중 반납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0학년도에 반납한 17억여원과 비슷한 액수로 결과적으로 법인은 교비회계에 약정한 전입금을 줄여 의료원 임대수입 미반납 분을 반납한 것으로 판단됨. 이는 현재 열악한 상태에 있는 교비회계에 더 큰 부담을 초래하는 행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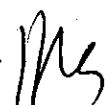
2. 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입액 비율이 법정금액 대비 2008학년도 44%, 2009학년도 50%로 향상되어 왔으나 2010학년도에는 17%, 2011학년도에는 29%로 대폭 줄어들었음. 법인의 재정 형편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 아니라면 이 비율을 2008, 2009학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법인에 있다고 판단함.

3. 웰빙센터 건축을 위해 의료원에서 법인으로 전출한 기금(2008학년도 70억, 2009-2011학년도 매해 65억)의 이자 수입이 기금 내에서 관리되어 향후 의료원으로 전입되는 것이 합당함. 의료원에서 법인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면 이자 수입은 의료원에 귀속하되 매년 일정 액수를 법인 운영비로 지원하는 등 양성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4. 2011학년도 의료원 본예산 편성에 있어 매년 20억-25억 정도를 임대료와 발전기금으로 기여하던 의료재료 공급업자의 기여가 2011년도 의약품실거래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하여 전액 삭감되어 있음. 제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재료 공급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임대료와 발전기금을 기대하는 것이 맞음. 차제에 의료재료 공급체계에 변화를 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간서명 란 >

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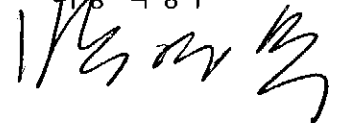
5. 2011학년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최종 학년을 채우게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재정적인 비용과 수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이는 수익이 비용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 비용 혹은 순 수익을 정확히 계산함으로써 현황을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임.

6. 향후 본예산 비교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추경예산/본연도 본예산 항목이 모두 제시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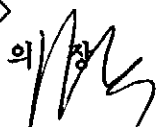
2011. 2. 8.

아주대학교 대학평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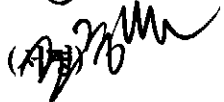




의장 박영무



< 간서명 란 >



2011년 1월 31일

의 장	박 영 무	(서명) 
부의장	주 동 표	(서명) 
평의원	조 중 열	(서명) 
평의원	이 재 호	(서명) 
평의원	오 동 석	(서명)
평의원	박 철 균	(서명) 
평의원	박 정 응	(서명)
평의원	김 용 호	(서명)
평의원	임 원 형	(서명) 
평의원	이 해 진	(서명)
평의원	김 관 균	(서명) 
평의원	박 윤 규	(서명)
평의원	박 상 호	(서명)
기 록	진 성 호	(서명)

< 간서명 란 >  
의 장 